

중국 고대 인성론의 주요 범주와 교육적 영향

장 종 원*
(부경대학교)

A Study on the Main Categories and Educational Influence of Chinese Ancient Humanism

Jong-Won J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Human development is the important role of education. There were thinkers of Chin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ese are divided into two general point of view. One theory is that as the representative of Mencius, Xuncius. Environment and education will be acquired this means that there is a crucial human development. Song, Ming dynasty came to the training began to do research for a decisive action. The other is to represent the viewpoint of Dongzhongshu, Hányu. According to their education was not to transcend the inherent limitations. Educator of ancient China have had a perspective that humanity can change. Humans show the progress theory emphasizes the potential of toughness as compared to the effect of the training point of view was divided into three classes emphasize the birth. Debate and the search for the humanity of the ancient educator had left us a valuable ideological material. Their perspective on a variety of personality is judged that there are many still take part in educational as well as the value of exploring far today.

Key words : Main categories, Humanism, Xingshan shuo, Xing e shuo, Xing sanpin shuo

I. 서론

범주는 인류가 인식능력을 계발하여 발전시킨 생활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일정한 범주를 설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의 일정한 단계를 가리킨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라 실행되고 발전되어 더욱 다양해지고 정확해진다. 한 민족의 이념적 사유나 한 시대의 시대사조는 많은 범주로 구성된다. 중국 고대 인성론의 발전과정에도 많은 범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현재에도 그 영향력이나 활용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범주화함으로써 연구의 효용가치를 높이

고자 하는 것이다. 인성론은 맹자 등 특정 사상가의 교육사상 연구와 철학적 의미의 인성론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그것의 교육적 영향에 대한 연구의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런 범주의 확정과 변화는 사상가의 교육관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습(性習), 성정(性情), 이기(理氣), 이욕(理欲) 등의 범주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로 회자되고 이들 범주는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어 사상가들이 서로 만나는 접점이 되므로 그 범주에 따른 인성론의 교육적 영향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대인성론 가운데 몇 가지 주요한 범주

* Corresponding author : 010-2010-8279, cjwon0417@hanmail.net

를 고려하고 또한 이런 범주의 설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의 인성교육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인성론

인성의 선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른바 서로 다른 인성이 있다고 말하는가? 성정 관계의 탐색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시도한 것들이다. 비교적 직접적으로 성과 정의 관계를 다루고 이론적으로 이 양자에 대해 구별하기 시작한 것은 순자로부터라고 사료된다.

성정은 인간이 이익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피하여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천부적인 본능이다. 순자는 성, 정과 욕망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를 “성이란 하늘이 부여한 바이고 정이란 성의 질이며 욕망이란 정이 응한 것이다”(Xunzi · zhengming)고 하였다. 이 말은 성은 하늘이 자연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정이란 성의 자질이요 욕망이란 정의 감응이라는 뜻이다.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부여된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이 바로 식욕, 색욕의 욕망을 추구하고 이로움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피하려는 정서와 희로애락의 감정이다. 성, 정, 욕망은 인간이 천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욕의 과다로 인간은 바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욕망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며, 인간에게 욕망이 부여 되어 있다고 하면 인간의 자질인 정을 길러야 한다. 욕망은 성과 같이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욕망이 있는 것을 무욕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방법은 욕심을 지도하고 욕심을 절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성에는 성과 정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성은 선하며 어질고 정은 악하며 탐

한다. 그러므로 인성에는 선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인성의 선악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성은 교육을 받아 선이 되므로 이것을 일러 진정으로 하늘이라고 한다.(Xunzi · zhengming)

동중서(董仲舒, B.C.176추정~B.C.104)는 어른이 되면 성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정욕이 매우 적은 경우로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선해지는 성인의 성이 있다. 이는 가장 좋은 것이다. 두 번째로 정욕이 매우 많아 가르쳐도 선이 될 수 없는 하찮은 성으로 가장 부끄러운 것이다. 세 번째는 정욕이 있지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중민의 성이 있다.

성이라고 이름 하는 것은 중간 정도의 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중민의 성 즉, 중간 정도의 성은 마치 누에고치와 알에 비유될 수 있다. 알은 이십 여 일 동안 잘 덮어 품어준 다음에 병아리가 될 수 있고, 누에고치는 실을 뽑아 끓는 물에 삶은 다음에 실이 될 수 있으며, 성은 점차적으로 가르치고 훈도한 다음에 선이 될 수 있다. 선은 가르치고 훈도한 까닭으로 된 것이지, 소질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Chunqiu fan lu · shi xing)

한유(韓愈, 768~824)는 자신의 저서 『원성(原性)』에서 인간의 성과 정을 통일하려고 시도하였다. 인간의 성과 정은 하나하나에 대응한 것으로 어떤 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에도 세 가지 종류의 삼품이 있다는 것이다. 한유는 비록 성에 세 가지 종류의 삼품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또한 상품의 성은 학습으로 더욱 밝혀질 수 있으나 하품의 성은 두려워하고 위협을 가해야 죄를 적게 짓는다고 하였다. 상품의 성은 교육이 가능하나 하품은 통제해야 한다는 현실을 돌아보게 하여 성삼품설은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고(李翱, 774~836)는 한유가 제시한 성정론(性情論)에 진일보한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는 성과 정의 관계는 이미 결정과 피결정의 관계라고 지적한다. 또한 표현과 피표현(被表現)의 관계라

고 말한다.

“인간이 성인이 되는 것은 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 성을 의혹되게 하는 것은 정 때문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성이란 하늘이 명한 것이다. 성인은 이것을 얻어 의혹됨이 없는 것이다. 정이란 성이 동한 것이다. 백성이 이에 빠져 그 근본을 알 수 없다.” (Chūn fu xíng shū shàng)

“性(성)과 情(정)이란 하나이다. 희노애락호오욕(喜怒哀樂好惡欲)이 밖으로 발하기 이전에 마음에 존재하는 것이 성이다. 희노애락호오욕이 밖으로 발하여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정이다” (Xingqing)

“이 칠정이란 인간이 세상에 나와 존재하는 것이자, 사물에 접한 다음에 동하는 것이다. 동하는데 이치에 합당하면 성인이고, 어진 사람이고 이치에 합당하지 못하면 소인이다.” (Xingqing)

왕안석(王安石, 1021~1086) 이후에 송대 사상가들은 이런 성과 정에 대하여 성은 선하고 정은 악하다거나 성과정이 선악과 일치한다는 두 가지 주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상가들이 성과정이 선악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계속 퍼면서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1. 이기와 인성

이기를 맨 먼저 범주화하여 제시한 사람은 장재(張載, 1020~1077)이다. “천지의 기는 비록 백여 가지로 모았다 흩어졌다 공격했다 취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가 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에 따르나 망령되이 하지 않는다”(Zheng meng · taiyang)고 하였다. 천지지성(天地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명제를 제시하였다.

“맹자(孟子, B.C.372추정~B.C.289추정)는 군자가 마음을 화하게 한다는 것은 기가 화하고 마음이 바르게 되어 기가 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Jingxue liku · qizhi)

장재는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모든 일용행사가 도에 맞아야(集義) 한다. 모든 행사가 도에 맞아야 만이 호연지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모든

행사가 도에 맞는 것이 바로 선을 모으는 것이요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이(정이, 1033~1107), 정호(程顥, 1032~1085)는 장재의 이런 천지지성과 기질지성의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선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재(才) 때문이다. 성은 이(理)이고 이(理)는 요순임금으로부터 보통사람에 이르기까지 한가지이다. 재(才)는 기에 품수되어 있는데 기에는 청탁이 있다. 그 맑은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어진 사람이 되고 그 탁한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Ercheng ji · yishū, yichuan xiansheng yu si)고 정이는 말하였다.

그는 선악과 지우(智愚)의 차별이 모두 변화 가능한 것으로 그 관건은 교육과 학습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주희(朱熹, 1130~1200)는 장재와 이정(二程)이 주장한 이기(理氣)와 관련된 사상에 체계화를 가했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선성이 구비되어 있으며 본연지성은 자연이 천리에 합치된 것이기에 성(性)은 이(理)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불가피하게 모두 기질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가리게 되면 그 본연지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단지 교육을 통해야만 그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성은 모두 선하지만 그것을 아는데 선후가 있다. 뒤에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의 하는 바를 본받아야 선을 밝게 알아서 처음의 본성으로 회복할 수 있다.” (Lunyu jizhu · xue er)

명대 사상가인 왕정상(王廷相, 1474~1544)은 위와 같이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관점에 반대하면서 성과기의 상자성(相資性) 즉,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제시하면서 송대 유학에서 인성이 이와 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구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는 송대 유학자들에게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인간과 사물의

성에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기를 떠나 성을 말하면 성이 처한 곳이 없어 허(虛)와 유사한 것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성을 떠나 기를 말하는 것은 기가 생동하지 않아 죽은 것과 같다. 성과 기는 상자하여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이다.” (Da bi jun cai lun xing shu)

위에서는 기질에 천지성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왕부지(王夫之, 1619~1692)는 명·청대에 저명한 사상가로 기는 우주 만물의 본체요, 천 우주가 모두 이·기로 구성된 것이며 기는 영원히 존재하여 만물이 모이고 흩어지며 나타나고 숨고 밝고 어두운 것이 모두 기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런 일원론적 기 본체론의 사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릇 성이란 태어 날 때 가지고 나오는 이치로 날로 태어나며 날로 이뤄지는 것이다. 오직 이렇게 명받은 것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성은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개인차가 나타나게 된다.” (Shang shu yin yi · tai jia er)

인간은 태어나 성장한 다음에야 감각, 사유 활동을 하게 된다. 인성도 선천적으로 구비된 것은 아니고 성장함에 따라 인성도 부단히 변화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한 개인인 유년에서 소년, 소년에서 장년, 장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일 매시로 모두 명을 받아 인성을 이뤄가는 것이다.

“맹자는 인성을 말했고 공자(孔子, B.C.551~B.C.479)는 후천적으로 익히는 것을 말했다. 이런 입장을 따르면 인성이란 천도이고 익힌다는 것은 인도이다. 이미 익히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성을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인성을 보았지만 익히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하물며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올바른 것을 기르면 성인의 공을 이룬다. 어릴 때부터 익힌 바를 기르면 성인이 되는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다.” (Qi jie)

인성은 후천적 환경의 영향과 학습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익혀서 이뤄진 다음에는 곧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2. 이와 욕망(理欲)

유가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라고 하고, 묵가에서는 고행을 중시하여 금욕의 경향이 있으며, 도가에서는 무욕(無欲)을 주장하며, 타악(它醜, 전국시대 사람으로 성정이 방탕하여 금수에 가까움), 위모(魏牟)는 욕망을 좇으라고 주장했다. 당시에 인간의 욕망에 대립된 개념을 도라고 하였다. 이는 이욕(理欲)에 대한 논쟁에 앞서 제기된 것이다. 진한대 사상가들은 이욕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예기·악기(禮記·樂記)』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그 성품이 고요한데(靜) 이는 천지의 성이다. 외부의 사물에 감응하면 성이 욕구를 발동한다. 사물에 대한 앎이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형성된다. 무릇 인간이 사물에 대한 감응에는 무궁하나 인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 이는 사물에 의해 인간이 물격화된 것이다. 인간이 사물에 의해 물격화 됐다는 것은 천리를 멀하고 인간의 욕구를 궁구한다는 것이다” (Liji · le ji).

이욕의 관계는 송대 유학자들의 인성론, 도덕론에서도 제시된 하나의 핵심 문제였다. 이 문제는 성과 정의 문제로부터 천지성인과 기질지성 등과의 관계에서도 발전되어 나온 문제이다.(Zhuzi yu lei, Quan13) 인성과 천리는 본래 광명하여 인간의 정욕에 의한 가림이 없다면 당연히 외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인성, 천리의 광명을 상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연히 광명을 보존하기 위한 수양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욕에 가려 인성, 천리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수양공부가 필요하고 정욕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주희는 성리학의 집대성자로 이욕과 관련하여 가장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인심이 인욕(人慾)을 나타낸 것이라면 도심은 천리를 표현한 것으로 인욕과 천리는 대립된다. 주희는 천리가 인욕과 싸워 이길 것을 주장한다. 주관적 정신으로 생리, 물질적인 욕망의 욕구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수련을 해야만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는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

여 천리로써 인욕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克己復禮) 과정이라고 했다.

인욕이 범람하면 반드시 천리가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악이 변하여 선을 회복토록 하기 위해서는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없애야 한다.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방법이 공부이다.

왕부지는 천리와 인욕의 통일을 중시하여 천리가 인간의 욕심과 함께 있고 천리와 인욕은 인간의 성품에 관하여 합치되는 이론이라고 제시했다. 천리와 인욕은 모두 인성으로 인욕을 떠나면 천리도 말할 수 없고 천리가 인욕 가운데 존재하여 인욕이 존재해야 천리도 존재한다고 한다. 왕부지는 인욕을 적극 부정하기 보다는 인간의 욕구를 막고 억제하는 주장은 인성발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대진은 송·명대 성리학에서 천리는 존재하지만 인욕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투쟁을 벌이는 것에 반대하고서 새롭게 한 차원 높였다. 그는 천리는 원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며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천리이지 욕심을 떠나 천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악은 인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대진은 봉건통치자들이 천리로 인간을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왕부지, 대진 등은 인욕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 후세에 계몽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3. 인성과 후천적 학습

인성과 후천적 학습은 공자가 맨 먼저 제시한 범주이다. 그는 “인성은 서로 가까우나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서로 멀어졌다”고 하였다. 공자가 제시한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 차이는 크지 않고 교육이 인간의 발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공자 이후 많은 사상이

들이 인성과 후천적 학습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적지 않은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맹자는 선천적으로 인성의 성선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양지(良知)와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양지, 인의예지 등의 관념도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는 입장이었다.

순자(荀子, B.C.298~B.C.238)는 습속을 익혀 인간의 성품을 도야함(注錯習俗, 所以化性)을 주장하여 점진적인 것(漸)과 꾸준히 쌓아가는(積) 교육과 학습의 공부를 강조하였다. 동중서는 명(命)이 결정한다는 성삼품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보통사람의 인성은 더욱 이와 같다고 하였다. 송·명대 장재는 기질의 변화를 강조하는 학설을 제시하여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조할 수 있으며 아울러 봉건적인 윤리 도덕으로 수양하는 사회적 작용을 제기했다. 인성과 후천적 학습간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견해 가운데 일치하는 점은 바로 자아수양과 교육적 작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인성은 변화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 고대 사상의 발전 과정에서 인성의 기원, 본질 형성 등의 문제와 아울러 인간의 자연적 속성과 인간의 사회적 속성간의 관계 등을 논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논의는 중국 고대 교육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교육사상에서 노자(老子, 미상~미상)와 장자(莊子, B.C.369~B.C.289)는 자연주의와 개인본위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그들은 자연무위를 강조했다. 무릇 자연과 인위적인 것에 자연적인 것을 부가하고 인위적인 것이라 해도 자연이 허락하는 범주를 뛰어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자연주의 사상은 중국 고대 사회 발전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줄곧 존재해 오면서 사회 본위로 자강불식(自強不息)을 강조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가 하면 상보적 관계, 공동으로 중국 고대 인간

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갖기도 했다.

중국 고대의 유구한 역사에서 사회 본위와 비자연주의는 주도적 지위를 점유하였다. 개인본위와 자연주의는 종종 서로 다른 입장의 이념이나 주장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들은 단지 사회본위와 비자연주의가 발전하여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사회는 충분히 이들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일종의 새로운 방안 모색을 위한 충돌을 야기한다.

중국 인성문제의 발전과정에서 더욱 논쟁이 야기된 것은 사회 본위의 이런 일부 파벌 내부에서 또 맹자와 순자가 시작한 분기점에서도 그렇다. 한 쪽이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인간의 능동성을 발휘하는 것에 관해서 발전을 가져 왔다면 다른 일파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여 사회가 발전하여 어떻게 인성의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결국 이들 두 학파는 모두 교육의 작용을 강조했다. 사실, 자기수양의 내용은 사회가 규정한 것이다. 사회적 영향도 반드시 인간의 수양과 행위로 귀결된다.

중국 고대 사상가의 관념에는 인성의 결정적 요인이 인간의 사회적 속성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인식이 유심주의 체계에 기초를 두고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인성이 사회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은 사상가들로 하여금 보편적으로 교육적 작용을 강조하게 했다. 맹자, 순자는 모두 적극적으로 교육이 인간의 발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증명하였고 아울러 안으로 자기수양과 밖으로 일어나는 인위적인 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과 학습 과정을 검토했다. 동중서는 성삼품설을 주장했다. 단 보통 사람의 성은 교육으로 선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보통사람의 인성은 범위가 넓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왕충(王充, 27~100)도 인성의 삼품설을 주장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성인가를 논하지 않았고 선악에 대해 관계하지 않고 모두 변화할 수 있으며 관건은 교육에

있다고 했다.

인간의 개체 유전적인 형질은 사회적인 인간 존재를 위해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사회 환경에서 그가 참여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가능성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을 따름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인간의 자연적 속성이 도대체 인간 발달에 어떤 가능성을 제공하는가이다. 이런 가능성은 구체적인 개체의 신체에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 것인가? 이런 경향성이 일정 수준에서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인간의 사회적 모종의 속성도 오랜 역사적 경험의 축적 과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속성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전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등등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비록 아직 공인된 결론은 없지만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의 자연적 속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심화되어 이미 주요한 발전을 가져왔다.

인간이라는 유기체, 인간의 유전적 형질, 인간의 본능 욕구 등은 모두 인간의 자연적 속성의 범주이다. 자연은 사실 개인이 발전하는 물질적 토대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만이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고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적 속성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Ⅲ. 인성론과 교육의 관계

교육의 대상은 인간이다. 교육이 사회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여부, 그 작용의 범위는 교육이 인간의 심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본질 및 인성론과 교육의 관계는 교육철학 연구의 핵심 문제 중의 하나가 된다. 어떤 이념적 기반 위에서 인성을 이해하고 교육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중용(中庸)』에서는 인성의 의미를 이렇게 밝

혀주고 있다. 즉,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고 하고 성품을 거느리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가르침이다”고 한다. 또한 여기서 성이란 하늘이 명한 것이고, 숭선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도이며 교육은 하늘이 명한 성에 따라 수양을 하여 도에 합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중국 고대 교육가들의 사유논리 가운데 인성론은 교육의 이론적 기초이자 교육관에는 정확한 인성론의 기초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이런 배경은 춘추전국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인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대사조로 하여금 중국 고대의 사상적 전통을 수립하게 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거론하게 되었지만 인성에 대한 논의는 교육 문제까지 미치지 못했고 실제적인 접근은 하지 못했다.

중국 고대 교육사상의 출발점에서 보면 인성론은 교육관의 기초이자 교육의 대상을 선택하고 교육의 작용을 확정하며 교육 목표를 정하고 교육을 실천에 옮기는 원칙과 방법의 근거가 된 것이다.

1. 인성론과 교육대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실 조건에서 보면 당시의 생산수준, 특히 당시의 정치·경제적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경, 봉건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생산력이 발달되지 못해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될 수 없었다. 사회적 생산과 생활수준 역시 청소년들이 반드시 학교교육을 받은 다음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지 생산 노동, 일상생활에서 성인들과 함께 더불어 인간이 되는 길을 배우고 생산 노동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배워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바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생산력이 일부 소수 사람들에게만 정규 학교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뿐이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주장에 근거하

여 사람마다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고 교육의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인간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을 때부터 차별이 존재하여 교육에서 차별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교육 외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중국 교육사에서 공자는 가장 일찍 인간을 교육하는데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교육가이다. 공자가 말한 교육에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 비단 교육을 누가 했든 야만인이든 그들의 지역적 출신 배경에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란 아래 서민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급 제도의 타파이다. 공자의 이런 사상은 혁신적인 것으로 당시 계층 관계의 변화 요구에 따라 큰 영향을 미쳤다.

춘추전국시대는 사회변동이 크게 일어나던 시대였으며 신구사상 간에 논쟁이 격렬하게 표출된 시대였다. 공자의 가르침에서 귀중히 여기는 부분은 그가 제시한 것이 객관적 사실에 거의 접근해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그의 주장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맹자는 비교적 농민을 본위로 하는 색깔이 두드러진 교육가이다.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인식은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순자(荀子)도 인성은 서로 한 가지라고 하여 “대개 인성은 요순과 같은 성인이나 걸출한 인물을 나타내는 성품의 하나이다. 군자와 소인의 인성도 하나이다”(Xunzi ·xing e)라고 하였다. 순자의 인성론과 맹자의 그것에는 서로 대립되는 점이 많다. 반면에 두 사람 간에 일치하는 점도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당시 신흥 지주계급의 대표적 인물로 그들의 주장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를 합리화 하는데 요긴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는 이른바 천명사상이 비판을 받게 되었다.

동중서는 처음으로 인성에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성삼품설을 주장한 교육가이다. 그는 성인의 성품을 상품이라고 한다. 이는 하늘로부터 날 때 가지고 나온 과선(過善)의 성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선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후천적으로도 역시 미칠 수 없다고 하여 통치계급을 가장 상위층의 소수 일부로 지칭하고 위로 하늘에서 그들을 보내 예악을 만들고 법도를 세우며 만민을 통치 교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른바 하찮은 성(斗筭之性)을 하품(下品)으로 간주하고 이들은 날 때부터 악하여 교화도 효용이 없고 단지 형법으로 그들을 대치해야 할 뿐이다. 반면에 중민의 성, 즉 일반인의 성은 착한 소질은 있으나 착해질 수 없고 점차로 교육과 훈도를 받은 다음에 선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중서의 사상은 인간이 모두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고대의 평등사상을 부인한다. 그리하여 최고의 황제 권한을 신성화 해주고 전체 통치의 절대화 및 사회 계층적 구조의 영속화를 추구하는 데에 이론적 근거가 된다.

요컨대 교육가들의 교육권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의 이해관계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인성론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것으로 활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유전적 형질의 차이가 인간의 심신 발달에 개별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같은 논리로 일반화하면 정상적인 인간에게 천부적인 차이가 그의 성장 발달 과정에 일으키는 작용은 크지 않다는 증거가 있다.

인간의 선악은 선천적인 유전적 형질로 예측할 수 없다.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과 철학자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집에서 기르는 일반 개와 사냥개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처럼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것으로 주장하여 통치의 정당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고, 그들 간의 큰 격차

를 탐구해 내는 일은 마치 분업화한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성론과 교육적 작용

중국 고대 교육가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인성은 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정도가 다르고 교육적 작용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다. 공자는 교육적 작용을 매우 중시했다. 그는 “익히는데 서로 멀다”는 것으로 이론적 기초를 삼아 교육이 인간 성장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각종 바람직한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학습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으면 이런 좋은 자질이 어리석고, 호탕하고, 남을 해치고, 어지럽고, 경솔하여 부도덕한 결과를 낳게 된다.

맹자는 교육의 역할을 작지 않다고 인식했다. 인간이 비록 양지를 갖추고 있다고 할 때 양(良) 즉, 훌륭하다는 것은 선천적인 신성과 같다. 그러나 관건은 그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느냐 여부이다. 교육적 작용이 바로 인간의 흩어지고 잃어버린 선성을 회복하게 해 주어 본래의 선성을 지키고 확충해준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함과 동시에 보통 사람도 우(禹)임금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고 보통 사람이 우임금 같은 성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교육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인식한다.

교육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악한 자를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와 경제적 지위도 바꿀 수 있다. 동중서는 인성을 성과 정의 대립된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면서 “신체의 이름은 모두 하늘에서 얻었고 하늘은 음양이라는 두 가지를 베풀었으며 몸에도 역시 두 가지 즉, 탐욕과 어진 인성이 있다”(Chunqiu fan lu · shen cha minghao)고 하여 하늘에는 음양이 있고 인간은 하늘의 복사본이기 때문에 인성에도 역시 성과 정의 있다고 하였다.

동증서는 인성에는 선단(善端)이 있으나 이 선단이 바로 선이 아니라 선단은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만 선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선은 “교육이 맡은 것이지 성이 맡은 것은 아니다”(Chunqiu fan lu · shen cha minghao)고 하여 선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이미 인간의 성은 외부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선은 교육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 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왕충은 비록 인간의 선악이 물질적인 성의 기(氣)에 기원하지만 그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부가 기의 짙고 얇은 바를 교화에 있지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성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인성은 교육 여부에 따라 선으로 또는 악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천하에는 변화가 불가능한 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르칠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이 인간 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십분 인정하였다.

송·명대 성리학자들의 연구 성과는 중국 고대 인성과 교육관련 인식에 한 단계 도약을 가져왔다. 만일 춘추전국시대에서 한·당대까지 교육사상의 대부분이 경험적 결론이라면, 송·명대 성리학 이후 교육 사상은 사변적·철학적 성향이 강화되었으며, 교육 작용에 대하여 밝힌 내용도 더욱 정교해지고 심화되었다. 그들의 연구는 또 다시 교육이 인간의 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 왜 교육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주희는 성리학의 집대성자이다. 그는 인성을 이렇게 규정한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에는 어둡고 밝고, 맑고 탁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에 맑은 기운을 타고난 자는 성인이나 어진 사람이 된다. 마치 보배로운 진주가 맑은 냉수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다. 거의 탁

한 것을 타고난 사람은 어리석거나 미련하게 된다. 이는 마치 진주가 탁한 물에 있는 것과 같다. 이른바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탁한 물 가운데 이 진주를 닦아 내는 것이다.” (Yu lei, Quan4)

교육적 작용은 기질지성(氣質之性)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을 변화시켜 기질지성 가운데 선형적인 선성을 발휘하여 사덕(四德:천지자연의 네 가지 덕으로 元, 亨, 利, 貞)에 따라 만들어 가면 곧 인심으로 하여금 도심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태로운 인심이 위기에서 편안한 상태로 변화하여 잠재된 도심이 곧 나타나 완전한 모습을 띠게 된다. 이는 천리를 회복한 것이며 인육을 혁파하는 작용이기도 하다.

명·청대 출현한 선지 사상가들은 송·명대 성리학을 비판하고서 자신들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고대 인성론과 교육사상의 최후를 이론화하려 한 장르가 되었다. 이를테면 왕부지는 교육은 인간 형성과 발달 과정에 세 가지 측면에서 작용을 한다고 했다. 하나는 선천의 성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인 인식능력으로 하여금 강화하고 발달시키는 것이요, 둘은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지식과 재능을 얻을 수 있고 도덕의식을 형성할 수 있고, 셋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교육받지 못했거나 교육이 미치지 못하여 형성된 악습을 제거할 수 있다.

중국 고대의 교육가들은 인성은 변화가능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주관적인 능동성, 환경과 교육의 작용을 강조한다. 교육의 결정적인 작용에 대한 관점은 인간을 세 등급으로 나눠서 보는 관점에 비하면 더욱 혁명적인 면과 한걸음 진보된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인성론과 교육 목적

교육 목적은 학습자를 교육하기 위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의 모든 욕구의 총체를 교육을 통하여 교육 받는 자가 어떤 인간으로 길러질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와 사회 계층

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육 목적 문제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과학적 설명은 불가능했다. 고대 교육가들의 눈으로 보면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된 교육 목적은 탐구할만한 가치가 없었다. 단지 그런 만고에 불변하는 교육 목적이 진실된 것이고 가치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런 일정한 역사적 시기의 교육 목적은 하늘을 경으로 삼고 땅의 뜻으로 받아들이는(天經地義) 것이 만고 불변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층 간의 이익을 박탈한 채 교육 목적을 요구하고 그런 교육 목적은 스스로 인성의 소치라고 말한다. 맹자는 교육의 목적이 인륜을 밝히는 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맹자는 반복해서 인륜이 인성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논증함으로써 이런 인륜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했다.

『대학(大學)』은 춘추전국시대 이래 유가의 교육사상을 총결산한 것이다. 『대학』에서는 교육 목적을 “대학의 도는 덕을 밝히고 국민을 친하게 하고 지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괄하고 있다. 여기서 덕을 밝힌다는 것은 인륜을 밝힌다는 것이요, 국민을 친하게 한다는 것은 덕치와 어진 정치의 정신으로 감화를 준다는 것이며 또한 민중에 대한 교화를 실시하여 오래 전부터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여 국민이 서로 친하게 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 목적은 봉건 사회에서 매우 장기간에 걸쳐 교육의 근본 목적이 되어 그 영향은 매우 멀리 미쳤다.

인성론은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 제공되는 이론적 근거이나 교육의 직분은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미 도덕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특징이요 자연히 길러낼 도덕적 품성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인성론과 교육 원리, 교육 방법

교육 원리와 교육 방법은 고대 교육사상의 중

요한 요소이다. 고대 교육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교육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에 대응하고 교육과정에서 모종의 일반화된 법칙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많은 의미 있는 교육 원리와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형성된 많은 내용은 인간의 본질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들이다.

고대 교육사상에서는 자율적인 원리가 강조되었다. 이들은 서로 인성론의 이론적 기초 위에서 세워졌다. 자율적인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학자들은 교육이 학생의 내재된 마음을 수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아 통제 능력과 선한 행위를 위주로 하는 자각성을 강조한다. 성선론을 주장하는 교육가들은 대부분 이런 관점을 지지한다. 맹자는 맨 먼저 성선론을 제시했으며 동시에 자율적인 원리를 강조한 교육 체계를 수립했다.

이미 착한 본성이 인간에게 모두 갖추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임무는 곧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단지 수양공부를 강화하면 선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방법에서도 맹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아 구할 것(反求諸己)을 강조했다.

인간이 학습하는데 반드시 주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부단히 탐구하는 의지를 가짐과 동시에 적극적인 자각으로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양명도 자율적인 원리를 주장했다.

왕양명(王陽明, 1472 ~ 1529)이 인식한 교육의 주요한 문제는 어떻게 이 양지(모든 사람이 가지는 선천적·보편적 마음의 본체)에 이르는가였다. (Wang-yangmyeong, shu weishimeng juan) 그는 여러 차례 마음을 보존하기(존심:存心), 마음을 다하기(진심:盡心), 마음 밝히기(명심:明心), 방심한 마음을 거두어들이기(수기방심:收其放心), 그 마음을 구하여 얻는 것(구득기심:求得其心) 등의 수양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타율적인 교육 원리를 강조한 교육가들은 학생의 행동이 사회에 대한 모종의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전통 도덕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학생이 사회도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학생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은 채 학생의 변화를 요구하는 공부만 강조한다. 성악설에 기초한 교육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교육가들은 이런 학설을 주장한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인성에서 바람직한 것을 끌어낼 방법이 없으면 성인이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長遷而不反其初, 오랜 기간에 걸쳐 후천적인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래 처음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교육적 작용은 인성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인성의 변화가 작위적인 것, 의지적 실천을 통해 본성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화성기위(化性起偽)를(Xunzi · xing e) 주장하면서 장기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 다시 그 본래 면목을 회복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교육과정은 교사가 학생의 성정(性情)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학생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자 학생에 대해 맨 먼저 할 말이란 바로 사회의 예의 규범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학습의 과정에서 돈오(頓悟, 불교에서 문득 깨달음)와 점오(漸悟, 불교에서 점진적인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말함)를 말하는데 이 역시 인성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맹자는 인성과 하늘은 서로 합해지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렇다면 하늘이 만물을 낳았다는 것은 인성에 만물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수양 과정에는 큰 부분의(거시적인 면) 마음에서 시작하여 일단 자기의 본래 마음이 착한 것임을 알고 그 마음을 보존하기 시작해야 스스로 존재하는 선으로부터 선의 경지를 자각할 수 있다. 이 때 감각적으로 느끼는 혼란스런 것들도 인정되지 않는다. 순자는 학습과 수양은 하나씩

하나씩 수행 해가는 것으로 보고 양적으로 누적되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그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안구이질:安久移質)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원초적 본래성으로 회복될 수 없다(장천불반:長遷不反)”는 사상을 제기했다. 교육이 꾸준히 쌓아가는 노력(積)과 점진적으로 실행[漸]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맹자와 순자는 학습, 수양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육에서도 역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대 사상사에서 어떤 교육가들은 맹자의 수양 방법이 후에 돈오설(頓悟說, 불교에서 문득 깨달음에 이른다)을 비유하여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 후천적으로 장기간의 노력보다는 순간적인 깨달음에 이르는데 점진적인 후천적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이론을 빌려 순자의 수양론을 비유함)로 발전 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 성리학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주체적인 작용을 발휘하는데 주력한 점에서 그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타율을 강조한 교육가들은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인간은 사회가 인정하는 지식 기능과 도덕적 규범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종종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간과하기 쉽다. 이런 두 학파의 관점은 상이한 관점에서 인성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풍부한 사상적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사상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인성론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발달에 미치는 작용 가운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중국 고대 교육가와 사상가들의 일관되고 중요시하던 관심사였다. 그들이 제시한 풍부한 사상적 자료는 오늘날 인간의 인성과 교육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그 다음으로 인성이 태도변화의 가능성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실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교육적 작용으로 기여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적 작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교육가들이 아직도 인성론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이 문제에는 대체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 볼 수 있다. 하나는 맹자·순자를 대표로 하는 관점이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이 인간발달 과정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송·명대에 이르면 더욱 한 걸음 나아가 교육이 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가, 어떻게 그런 작용을 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의 관점은 동·중·서·한유를 대표로 하는 관점이다. 이들은 교육이 서로 다른 사람의 심신에 상이한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그들에 의하면 교육적 작용은 한계가 있고 교육도 인성론에서 이미 규정한 선천적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다고 하였다. 교육은 가장 뛰어난 사람(上品)에 해당되는 사람이 배우면 더욱 명석하게 하지만 중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中品)은 교육을 받으면 상품의 사람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중국 고대의 교육가들은 인성은 변화 가능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주관적인 능동성과 환경·교육의 작용을 강조한다. 상이한 환경에서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교육에 의한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성이 완전하다면 완전한 정의의 사회를 열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성은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인간의 진화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교육적 작용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으로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다. 교육의 결정적인 작용에 대한 관점은 인

간을 세 등급으로 나뉘어 보는 삼품설의 관점에 비하여 더욱 변혁적이고 한걸음 진보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고대 교육사상가들의 인성에 대한 논쟁과 탐색은 우리에게 귀중한 사상적 자료를 전해 주었다. 이러한 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탐구의 가치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 Chun fu xing shu shang
 Chunqiu fan lu · shen cha minghao
 Chunqiu fan lu · shi xing
 Da bi jun cai lun xing shu
 Er cheng ji · yishu, yichuan xiansheng yu si
 Im, Sung-Min · Oh, Jung-Sook · Park, So-Young · Won, Hyo-Heon · Park, Jong-Un · Kang, Beodeul (2014). A Qualitative Analysis on Implement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Jour. Fish. Mar. Sci. Edu., 26(6), 1306~1314.
 Jang, Jong-Won(2015) Comparative Studies of China Ancient Humanism Theory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Jour. Fish. Mar. Sci. Edu., 27(3), 744~745.
 Jingxue liku · qizhi
 Kim, Dal-Hyo(2014) A Study on the Discourse of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Jour. Fish. Mar. Sci. Edu., 26(3), 474~484.
 Liji · le ji
 Lunyu jizhu · xue er
 Oh, Jung-Sook · Kang, Beodeul · Park, So-Young · Im, Sung-Min · Park, Jong-Un · Won, Hyo-Heon · Kim, Hak-Bum(2014). An Analysis of Teachers' Expectation and Need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Jour. Fish. Mar. Sci. Edu., 26(6), 1342~1351.
 Qi jie
 Shang shu yin yi · tai jia er
 Wang-yangmyeong, shu weishimeng juan
 Xingqing
 Xunzi · xing e
 Xunzi · zhengming

Yu lei, Quan4
Zheng meng · taiyang
Zhuzi yu lei, Quan13

-
- Received : 03 November, 2015
 - Revised : 18 December, 2015
 - Accepted : 04 January, 2016